

할머니께서 전해주시는 이야기 가득

전주시, 용머리 여의주마을 옛이야기 도서관 개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보따리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는 27일 서원신동 용머리 여의주마을 내 옛이야기도서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용머리 여의주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장,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지명에 설화가 존재하는 특성을 살려 △여의주를 품은 용 △오래된 보따리 △별의별 이야기 등을 주제로 총 840권의 도서가 비치됐다. 이곳에서는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옛이야기를 들려줄 이야기보따리

단 할머니들은 지난 2월부터 18회의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했으며, 최근 효자동 서원에서 열린 제1회 전주 옛이야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도시는 시민을 담은 그릇으로 도시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모습

도 달라진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옛이야기도서관이 보석 같은 전주의 옛이야기들을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공간 도시의 기억과 지역의 정체성인 '전주다움'을 지켜내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지만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긴 옛이야기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27일 서원신동 용머리 여의주마을 내 옛이야기도서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용머리 여의주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장,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여의주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생태숲공원에 들어선 옛이야기 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이다. 대한민국 최고 건축가 중 한명인 유현준 홍익대학교 교수(홍익대, 유현준건축사무소 대표)가 설계했다. 옛이야기 도서관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소공원 내에 조성되는 도서관의 경우 면적 33㎡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약에 따라 32㎡의 작은 규모로 지어졌지만 독특한 외관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또, 단풍나무와 수국 등 다양한 식생과 신채로로 조성된 생태숲공원과 어울리게 지어졌다. 옛이야기 도서관에는 '용머리'라는

전주 이강주, 세계무대에서 우수 인정

英 ISC서 '금상' 수상...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의미 있어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전통주인 '전주 이강주'가 세계 3대 주류 품평회에서 우수 수상을 인정받았다. 전주시는 전주이강주의 제품 '이강주'가 최근 세계적인 주류품평회로 꼽히는 영국 '2022 ISC(International Spirit Challenge)'에서 GOLD(금)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상을 수상한 '이강주' 제품은 백미와 보리쌀 누룩을 섞어 발효한 후 얻은 30~35도의 전통소주에 △술 빛깔을 맑게 하고 입맛을 당기게 만드는 '배' △위의 자극을 해소 시켜주는 '생강' △피로회복과 중화작용을 돕는 '율금' △매콤한 맛을 주는 '계피' △달콤한 '별꽃'이 어우러져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맛이 장점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로 27회를 맞이한 ISC는 해마다 전 세계 최고의 위스키 및 주류 등을 선정해 발표하는 세계 3대 주류 품평회 가운데 하나다.

전주 이강주 대표인 조정형 명인은 "사회사업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철학으로 매년 장애인연합회와 홀트아동복지회, 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복지재단 등에 후원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는 '우리 술 역사 박물관'을 만들어 학생·농어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방문객 무료관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선시대 중엽부터 전라도와 황해도에서 제조된 이강주(梨薑酒)는 우리나라의 3대 명주로 손꼽히는 술이다.

전주 이강주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9호이자 전북 무형문화재 6호인 조정형 명인(82)이 지난 1991년 제조면허를 받아 집안 대대로 전승돼온 가업주인 이강주의 비법을 계승·발전시켜 오늘에 이르렀다. 2008년에는 전주시가 그 품질을 인증하는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지정됐다.

전주 이강주는 대한민국 전통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9년 영국 LEBGANJU UK 지사를 설립하고 이듬해인 2020년 영국에 전주이강주를 선보인지 3년 만에 세계 3대 주류 품평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이강주는 2008년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지정된 이후 상품의 품질향상 및 신뢰도를 위해 꾸준한 연구 노력 및 제품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전주시의 브랜드 마케팅 및 판로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각종 특산물 전시회 참가를 통해 전주이강주를 널리 알리는 등 판로개척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수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상 기자

“미래 비전은 크게, 행사는 검소하게”

전주시장직 인수위 내달 1일 취임식 관련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체계 강화한다

전주시보건소, 협의체 회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공조

민선8기 전주시정을 책임질 우범기 당선인이 다음 달 1일 취임식을 갖고 시민과 더불어 전주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취임식은 시민과 함께 시작하는 희망적인 미래 비전 제시를 주제로 형식적 의전은 생략한 채 검소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민선8기 전주시정을 책임질 우범기 당선인이 다음 달 1일 취임식을 갖고 시민과 더불어 전주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사진=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제공)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전주시청 강당에서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라는 슬로건 아래 제4대 우범기 전주시장 취임식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취임식은 전주시민과 각계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소하지만 품격있는 행사로 진행되며, 민선 8기 전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비전이 제시해 지역 화합과 결속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민선 8기 전주시에 바라는 시민의 꿈과 희망을 담은 동영상을 통해 시민의 바람에 적극 소통하는 의지를 담은 계획이다. 우 당선인은 취임식에 앞서 전주 근경 모자를 찾아 참배하고 시장실에서 사무

를 간소화해서 진행한다"며 "완전히 새로운 전주의 설계와 실현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우 당선인의 의지를 드러내고 지역 화합과 소통의 발판을 만드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27일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신과적 응급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정신과적 응급대응 협의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보건 경찰, 소방 정신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관계기관 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역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우 당선인은 취임식에 앞서 전주 근경 모자를 찾아 참배하고 시장실에서 사무

정신과적 응급 상황이란 사고, 행동, 기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로 정신질환이 악화되거나 급성으로 발현해 환자 및 타인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되는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이반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울증, 자살 문제 등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매뉴얼을 공유하고 정신응급 대응 현황 점검, 문제점 공유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비즈니스 SNS 채널 홍보를 위한 팔로워, 인증샷 이벤트 등으로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시는 지난해 같은 박람회에서는 관람객들에게 가장 많은 인기를 얻는 부스에 주어지는 '최우수 인기부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는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터내셔널 여행시대의 B2B 상담을 진행해

정신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서는 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입원 의뢰를 할 수 있으며 소방서는 응급환자를 안전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대상자의 추후관리 등을 위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자타해 위협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위기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안전과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의체 회의의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매뉴얼 점검 및 문제점을 개선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추억 속 어린이 기록물 찾아요'

전주시, 내달 1일부터 9월 말까지 수집 공모전

전주시가 올해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시민들의 추억과 도시의 기억 속에 담긴 어린이 관련 기록물을 수집한다.

보물, 기념품, 문구류, 인쇄물, 의복류, 예술품 등이다. 1996년 이전까지의 기록물이면 된다.

전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민의 추억 속 어린이 기록물'을 주제로 '제11회 전주 기록물 수집공모전'을 개최한다.

신청 방법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phm0507@korea.kr)으로 신청하거나, 전주시민기록관(덕진구 견훤로 264, 063-281-2333)으로 방문해 해당 기록물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2022년 어린이날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어린이'를 주제로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기록물에 대한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모결과를 오는 11월 중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반 공모전의 주제는 2022년 어린이날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어린이'를 주제로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록물은 한문헌과 습과 소망사실 등 보존 가치가 갖춰진 전주시민기록관(견훤로 264) 수장고에 전주의 기록자산으로 보관된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 교육기관인 유치(아)원과 1996년(초등 학교로 명칭이 변경) 이전 '국민학교' 교과서, 이름표와 각종 문서, 운동회, 소풍, 수학여행, 수련회 등 학교 행사 관련 자료 △관립소학교, 보통학교, 심산소학교 등 명칭이 다르나 초등 교육 기관 관련 사진 및 기록물을 찾는다.

수집·기증된 시민 기록물은 환원할 수 없고 소망사실 등 보존 가치가 갖춰진 전주시민기록관(견훤로 264) 수장고에 전주의 기록자산으로 보관된다.

이와 함께 △1928년부터 1996년까지 100년의 어린이날의 모습이 확인 가능한 기록물 △동영상, 글자자료, 사진, 영상, 정행문 등 어린이날 기념행사 자료 △어린이 시절 놀이 문화의 향유 공간이었던 놀이터, 오락실, 만화방 등 장소 관련 자료 △휴과 손과 몸으로 즐겼던 전통 놀이 관련 자료 등도 응모 가능하다.

환원할 수 없고 소망사실 등 보존 가치가 갖춰진 전주시민기록관(견훤로 264) 수장고에 전주의 기록자산으로 보관된다.

공모 유형은 △문서류(도서, 일기, 편지, 메모, 수첩, 상장, 국민학교 공문서, △시청각류(사진, 앨범류, 음성기록, 영상기록) △박물관(생활용품, 흥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 교육기관인 유치(아)원과 1996년(초등 학교로 명칭이 변경) 이전 '국민학교' 교과서, 이름표와 각종 문서, 운동회, 소풍, 수학여행, 수련회 등 학교 행사 관련 자료 △관립소학교, 보통학교, 심산소학교 등 명칭이 다르나 초등 교육 기관 관련 사진 및 기록물을 찾는다.

이와 함께 △1928년부터 1996년까지 100년의 어린이날의 모습이 확인 가능한 기록물 △동영상, 글자자료, 사진, 영상, 정행문 등 어린이날 기념행사 자료 △어린이 시절 놀이 문화의 향유 공간이었던 놀이터, 오락실, 만화방 등 장소 관련 자료 △휴과 손과 몸으로 즐겼던 전통 놀이 관련 자료 등도 응모 가능하다.

공모 유형은 △문서류(도서, 일기, 편지, 메모, 수첩, 상장, 국민학교 공문서, △시청각류(사진, 앨범류, 음성기록, 영상기록) △박물관(생활용품, 흥

공모 유형은 △문서류(도서, 일기, 편지, 메모, 수첩, 상장, 국민학교 공문서, △시청각류(사진, 앨범류, 음성기록, 영상기록) △박물관(생활용품, 흥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 교육기관인 유치(아)원과 1996년(초등 학교로 명칭이 변경) 이전 '국민학교' 교과서, 이름표와 각종 문서, 운동회, 소풍, 수학여행, 수련회 등 학교 행사 관련 자료 △관립소학교, 보통학교, 심산소학교 등 명칭이 다르나 초등 교육 기관 관련 사진 및 기록물을 찾는다.

이와 함께 △1928년부터 1996년까지 100년의 어린이날의 모습이 확인 가능한 기록물 △동영상, 글자자료, 사진, 영상, 정행문 등 어린이날 기념행사 자료 △어린이 시절 놀이 문화의 향유 공간이었던 놀이터, 오락실, 만화방 등 장소 관련 자료 △휴과 손과 몸으로 즐겼던 전통 놀이 관련 자료 등도 응모 가능하다.

공모 유형은 △문서류(도서, 일기, 편지, 메모, 수첩, 상장, 국민학교 공문서, △시청각류(사진, 앨범류, 음성기록, 영상기록) △박물관(생활용품, 흥

공모 유형은 △문서류(도서, 일기, 편지, 메모, 수첩, 상장, 국민학교 공문서, △시청각류(사진, 앨범류, 음성기록, 영상기록) △박물관(생활용품, 흥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 교육기관인 유치(아)원과 1996년(초등 학교로 명칭이 변경) 이전 '국민학교' 교과서, 이름표와 각종 문서, 운동회, 소풍, 수학여행, 수련회 등 학교 행사 관련 자료 △관립소학교, 보통학교, 심산소학교 등 명칭이 다르나 초등 교육 기관 관련 사진 및 기록물을 찾는다.

이와 함께 △1928년부터 1996년까지 100년의 어린이날의 모습이 확인 가능한 기록물 △동영상, 글자자료, 사진, 영상, 정행문 등 어린이날 기념행사 자료 △어린이 시절 놀이 문화의 향유 공간이었던 놀이터, 오락실, 만화방 등 장소 관련 자료 △휴과 손과 몸으로 즐겼던 전통 놀이 관련 자료 등도 응모 가능하다.

공모 유형은 △문서류(도서, 일기, 편지, 메모, 수첩, 상장, 국민학교 공문서, △시청각류(사진, 앨범류, 음성기록, 영상기록) △박물관(생활용품, 흥

공모 유형은 △문서류(도서, 일기, 편지, 메모, 수첩, 상장, 국민학교 공문서, △시청각류(사진, 앨범류, 음성기록, 영상기록) △박물관(생활용품, 흥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 교육기관인 유치(아)원과 1996년(초등 학교로 명칭이 변경) 이전 '국민학교' 교과서, 이름표와 각종 문서, 운동회, 소풍, 수학여행, 수련회 등 학교 행사 관련 자료 △관립소학교, 보통학교, 심산소학교 등 명칭이 다르나 초등 교육 기관 관련 사진 및 기록물을 찾는다.

이와 함께 △1928년부터 1996년까지 100년의 어린이날의 모습이 확인 가능한 기록물 △동영상, 글자자료, 사진, 영상, 정행문 등 어린이날 기념행사 자료 △어린이 시절 놀이 문화의 향유 공간이었던 놀이터, 오락실, 만화방 등 장소 관련 자료 △휴과 손과 몸으로 즐겼던 전통 놀이 관련 자료 등도 응모 가능하다.

공모 유형은 △문서류(도서, 일기, 편지, 메모, 수첩, 상장, 국민학교 공문서, △시청각류(사진, 앨범류, 음성기록, 영상기록) △박물관(생활용품, 흥